

주소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6/21/20160621001994.html>

김제 덕암정보고 풍물동아리, 동남아 찾아 전통문화공연



전북농악 전승학교인 김제시 덕암정보고고 풍물동아리가 동남아 각국을 찾아 사물놀이 공연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를 널리 알린다.

21일 덕암정보고에 따르면 풍물동아리 박보현 지도교사와 학생 5명은 다음 달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만 등을 순회하며 풍물, 사물놀이를 공연한다.

이번 순회 공연은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초청에 따른 것으로써 한국어를 배우는 각국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계획이다.

이들은 특히 농악뿐만 아니라 채상 소고놀이, 버나 돌리기, 죽방울 놀이, 열두발 상모 돌리기 등 외국 학생들이 그동안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우리 전통문화를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풍물동아리 학생들은 방과 후 시간마다 연습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덕암정보고 풍물 동아리는 1994년 창단됐으며 현재 3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지역 학교를 대표해 전주대사습놀이,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등 각종 전국대회에 참가해 농악, 민속놀이 등 다양한 민속예술 분야에서 20여 차례 수상실적을 거뒀다.

박보현 지도교사는 “해외 한국문화원 수강생들과 대학생들에게는 한국 문화와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동아리 학생들은 우리의 전통예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뜻깊은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2016-06-21 14:14:01

세계닷컴 뉴스 및 콘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GYE.com COPYRIGHT © SEGYE.com All rights reserved.

홈 > 뉴스 > 사람들

김제 덕암정보고 풍물동아리, 해외 순회 공연

2016년 06월 22일 (수)

김종표 ✉ kimjp@jjan.kr



김제 덕암정보고등학교 풍물동아리가 해외 순회 공연에 나선다.

전북농악 전승 학교인 덕암정보고는 풍물동아리 학생 5명과 박보현 지도교사가 다음달 11일부터 23일까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대만을 순회하면서 풍물·사물놀이 공연을 펼친다고 21일 밝혔다.

덕암정보고는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문화원 초청으로 인도네시아 공연을 기획했으며, 이를 계기로 베트남과 대만도 방문해 한국 전통문화를 선보이기로 했다.

이 학교 풍물동아리는 지난 1994년 창단한 이후 각종 전국대회에서 장관상 이상만 20여 차례나 수상하는 등 두각을 드러냈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공연을 위해 풍물동아리 학생들이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 매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면서 “농악뿐 아니라 채상 소고놀이, 버나 돌리기, 족방울놀이, 열두 발 상모 돌리기 등 외국 학생들이 접해 보지 못한 한국 전통문화를 다양하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전북일보(http://www.jjan.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홈 > 뉴스 > 문화 > 공연/전시

김제 덕암정보고 풍물 동아리 해외 순회공연

2016년 06월 21일 (화)

김영호 기자



덕암정보고 공연 모습

김제 덕암정보고등학교(교장 서충석)는 지구촌 시대를 맞아 전북 농악 전승학교로 도약을 꿈꾼다.

덕암정보고 풍물 동아리는 7월 11일부터 23일까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대만 등지를 차례로 순회하면서 공연을 실시한다.

이번 해외 공연은 현지 기관이나 학교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순수하게 자원봉사 형태로 이뤄진다.

이 기간 동안에는 공연을 통해, 풍물과 사물놀이 등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세계인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농악뿐만 아니라 채상 소고놀이, 버나 돌리기, 죽방울 놀이, 열두 발 상모돌리기 등 외국 학생들이 그동안 접해 보지 못했던 우리 전통문화를 다양하게 선보인다.

이번 공연을 위해 이 학교 풍물 동아리 학생들은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매일 매일 구슬땀을 흘리

며 꾸준한 연습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보현 덕암정보고 교사는 “공연을 기획하면서 풍물을 통해 우리의 우수한 전통예술을 외국 학생들에게 보여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학생들도 기대에 부풀어 있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정말 멋진 공연을 보여주고 싶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덕암정보고 풍물 동아리는 1994년 창단된 이후, 각종 전국대회에서 20여 차례 장관상 이상을 수상할 정도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떨친 바 있다.

김영호 기자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